한전 794명·한수원 210명…하반기 에너지 공기업 1400명 공채

임금피크제 도입·사업 확장 영향 상반기보다 150명 늘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임금피크제와 사업 확장 등의 영향 등으로 올 하반기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로해 채용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에 따르면 이들의 올해 하반기 채용 예정 규모는 14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채용 규모 1254명 보다 150명 가량 많은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다. 전체 공공기관 313곳이 노조 반발 등을 극복하고 지난해 12월 도입을 마무리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실적 개선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계획(1358명)을 잡았다. 올 상반기, 하반기 채용(예정) 규모는 각각 564명, 794명이다.

한수원은 올 상반기 207명을 채용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2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도 7월 말과 8월 초 사이에 하반기 정규직 채용 공고를 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채용 예정 인원은 150여명으로 상반기 36명 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동서발전은 하반기에 50여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50명 채용했다. 동서발전의 올해 전체 채용 규모는 약 100명으로 작년 16명 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서부발전도 임금피크제 등으로 올 하반기 50여명을 채용한다. 상반기 인원을 포함한 올 전체 채용 예정 인원은 125명이며 이는 작년 73명보다 5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중부발전은 하반기 정규직 100여명을 뽑을 예정이다. 상반기 40여명 보다 60명가량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남부발전의 하반기 채용 예정 인원은 43명으로 상반기 48명보다 5명 감소했다. 또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발전 등은 상반기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하반기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두 공사는 정부의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민간 투자를 확대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 산하 준정부 기관 등도 하반기 채용에 나선다. 공공기관은 자체 수입원 규모 등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가스기술공사는 하반기에 7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한전KDN는 같은 기간 채용 예정 인원으로 55명을 잡았다. 무역보험공사는 하반기에 4명 정도 뽑을 예정이며 코트라(KOTRA)는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에너지공단 등은 상반기 채용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하반기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주요기업 채용 계획

기업	인원
한국전력	794
한국수력원자력	210
한국가스공사	150
동서발전	50
서부발전	50
중부발전	100
남무발전	43
가스기술공사	70
한전KDN	55
무역보험공사	4

삼성가전, 에너지 효율 1등급 사면 할인

삼성전자 모델들이 4일 서울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에 대한 정부의 환급 지원 방침에 발맞춰 7월 한 달간 진행하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 할인 대축제'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가계·기업·국가 모두 '빚더미'

가계 1224조·기업 959조·국가채무 590조

최근 2~3년새 급증…신산업 육성 등 대책 시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가계와 기업, 정부 등 우리나라 경제 3주체의 부채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2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1.4% 늘어난 1223조7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의 40%가 넘는 '한계가구' 수는 2012년 132만5000가구에서 2015년 158만3000가구로 3년 새 20% 가까이 뛰었다.

늘어만 가는 것은 가계부채만이 아니다. 지난해 기업대출도 전년 대비 6.9% 늘어난 943조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업대출 규모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난 959조원을 나타냈다. 연내 1000조원 돌파도 가능한 상황이다.

나라 살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직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조달청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초과

中企 물품·서비스 구매 등 1조2524억…전년보다 10.3%P↑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박용주)이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지난 달 30일까지 1조2524억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집행, 상반기 조기집행목표(1조 2350억원) 대비 101.4%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연간 조달사업의 50.5%를 집행한 것과 비교할 때 10.3%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집행규모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55억원 대비 216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물품·서비스 구매가 연간 집행계획 1조 7028억원의 58.4%인 9943억원, 시설공사에서 연간 집행계획 3555억원의 72.6%인 2581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모두 지난해 보다 높은 실적이었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관내 2337개 공공기관에 조달수수료 차등 요율제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주요 공공기관을 방문해 중앙조달 이용 협조요청 등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사통팔달·명문 학군 '월산동 한국아델리움'

한국건설 조합원 모집…견본주택 오픈 462세대 공급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 현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월산동 한국아델리움'이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 201-10번지 자리할 한국아데리움은 지하 1층~지상 14·15층으로 28평형 166세대, 34평형 296세대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됐다. 〈조감도〉

광주 지하철 1호선 역세권 돌고개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남구 백운교차로와 서구 상무지구, 동구 충장로까지 2km 생활권 골드라인으로 통하는 프리미엄 입지로 교통의 요충지로 꼽힌다.

교육환경도 좋아 월산초, 대성초, 무진중까지 도보통학 스쿨존이 형성되며 광주 최고의 학군지역 등이 인접해 교육여건 또한 든든하다. 또 유·스퀘어, 광주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양동시장 등 상업지 중심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월산공원 산책로와 광주천이 인접해 있어 도심과 자연을 넘나드는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한국아델리움 관계자는 "광주의 토종 기업인 한국건설이 시공사로 나서, 신뢰도가 높은 지역주택조합으로 관심이 뜨겁다. 홍보관 오픈 이전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기에 조합원 모집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 722-5번지에 있다. 조합원 모집 관련 문의 062-514-399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95.30 (+7.98)
- ↑ 금리 (국고채 3년) 1.22% (+0.01)
- ↑ 코스닥 688.15 (+3.89)
- ↑ 환율 (USD) 1146.90원 (+1.90)